

이야기 카드 1

포스터가 안 끝나는 모둠

발표 하루 전, 가윤이 혼자 포스터를 그리고 있다. 현우는 “뭐 하면 돼?”만 묻고, 소율이는 다른 주제로 자료를 만들어 왔다. 준서는 누구 말을 따라야 할지 몰라 서 있다.



이야기 카드 2

패스가 없는 풋살팀

반 대항 풋살 경기. 준서는 공을 잡으면 혼자 끝까지 몰고 간다. 수비를 맡은 친구들도 자리를 비우고 모두 공만 쫓아다닌다. 전반이 끝나자 0 대 3, 다들 말이 없다.